

IT

PC, 3년 만의 수요 바닥

3분기 글로벌 PC 출하 바닥 확인

— 10월 13일 시장조사기관 (Canalys)에 따르면 3분기 글로벌 PC 출하량은 6,560만대로 전년대비 7% 감소했지만 전분기대비로는 +8% 성장세를 기록했다. 제품별 출하량은 노트북 5,210만대 (-6%), 모니터 1,350만대 (-8% YoY)를 나타냈다.

PC 출하량, 4분기부터 회복세 진입 전망

— 3분기 글로벌 PC 출하량이 전년대비 8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올 4분기부터는 전년대비 성장세 전환이 예상된다. 이는 글로벌 PC 업체들이 블랙프라이데이, 크리스마스 등 수요 성수기에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한 재고 감소가 뚜렷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게임용을 중심으로 한 consumer PC 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.

PC 업체 반도체 재고, 3년 내 최저치

— 4분기 현재 PC 업체들이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재고 (3~4주)는 정상 재고의 50% 수준으로 3년래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.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업황 방향의 선행 지표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PC 수요는 바닥을 찍은 것으로 판단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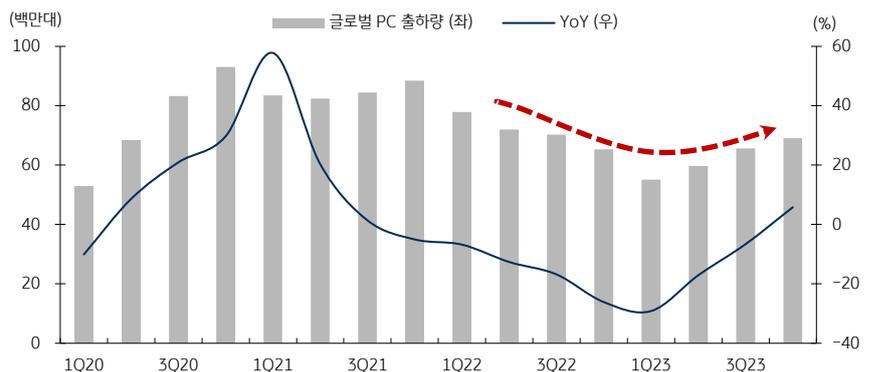
2024년 PC 출하, 3년 만에 성장세 전환

— 2024년 글로벌 PC 출하량은 2.67억대 (+5.5% YoY)로 추정되어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. 특히 기업용 PC 수요는 2025년 윈도우10 지원 종료로 PC 교체 수요가 PC 출하 성장을 자극할 전망이다.

3년 만의 PC 수요 회복: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LG디스플레이 수혜

— 글로벌 PC 수요는 출하량과 PC 업체들의 재고 수준을 고려할 때 9월에 바닥을 친 것으로 판단된다. 특히 델, HP, 인텔 CEO는 내년부터 PC 수요가 3년 만에 회복세 진입을 전망해 PC 수요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판단되고, 시장조사기관들도 내년 글로벌 PC 출하 성장률을 +3~5%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. 따라서 이 같은 PC 수요 회복 전망은 2024년 반도체, 디스플레이 업체 실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. 4분기 DRAM, NAND 고가격은 PC, 모바일 업체들의 재고조정 마무리와 부품 구매 확대 영향으로 올 4분기 2021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상승 전환 (DRAM +8%, NAND +4% QoQ)할 것으로 예상되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4분기 큰 폭의 실적개선이 기대된다. 특히 6개월 연속 강보합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PC용 LCD 패널가격도 내년부터 상승 전환이 예상되어 PC 패널이 전체 매출의 40% (10조원)를 차지하는 LG디스플레이도 내년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 추세에 진입할 전망이다.

4Q23F 글로벌 PC 출하량, 9개 분기만에 YoY 성장 전망



자료: Canalys, KB증권 추정



더 많은 리포트 보기



투자자 고지 사항

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[LG디스플레이]을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.

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[삼성전자]을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.

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[SK하이닉스]을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.

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

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,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,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